

전남 아파트시세

이사철 끝나 오름세 둔화…순천 소형은 올라

가을 이사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전남 아파트시세는 매매·전세가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

2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2주 새 전남 아파트 매매가는 21~25평형이 0.12% 상승하는 등 중·소형의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0.05%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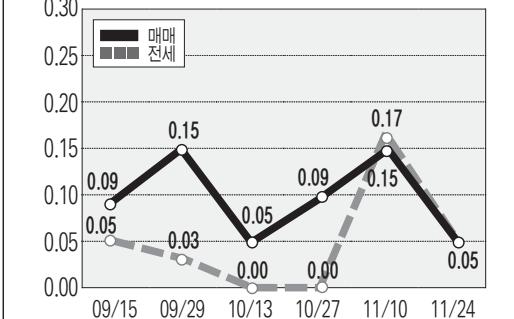
지역별로는 순천시가 0.14% 상승하면서 전남 아파트의 매매시장 상승세를 주도했다. 순천시의 경우 전세 물건을 찾는 수요자들이 단지 여건이 양호한 소형 매매물건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가격이 소폭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단지별로는 순천시 조례동 명지장미 20평형이 300만원 가량 오른 2천600만~3천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인근 현대아파트 27평형도 500만원 가량 상승한 5천500만~6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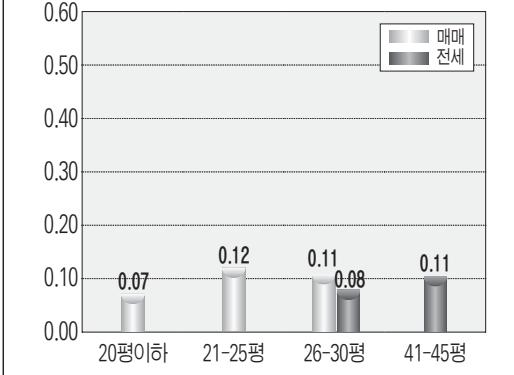
전세 시장은 41~45평형대가 0.11% 오른 것을 비롯, 31~35평형과 26~30평형이 각각 0.1%, 0.08% 상승하면서 2주 전보다 0.05% 올랐다.

지역별로는 목포시가 0.14% 상승한 가운데 목포시 용해동 금호타운 27평형이 300만원 오른 4천500만~5천3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호타운 31평형도 500만원 가량 오른 5천500만~6천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전남 아파트값 변동률 추이 (%)



평형대별 변동률 (%)



지역별 아파트 시세

지역별 아파트 시세